

# ‘그럴듯한 명분·집요한 법 논리’... 검찰을 고발한다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조국 외 6인 | 창비 | 2만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누르고 과반이 넘는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지역구 161+비례 14), 국민의힘은 108석(지역구 90+비례 18) 조국혁신당은 12석(비례 12), 개혁신당은 3석(지역구 1+ 비례 2), 새로운미래 1석(지역구 1), 진보당 1석(지역구 1)으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90석 가량에 이른다.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다. 범야권 세력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검찰독재 국가의 무능과 고발. 검찰권 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책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는 전면에서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한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은 검찰총장과 야당 결탁을 통한 정권교체로 일단락됐다. 개혁 과정에서 검찰은 강고한 조직논리를 추구하며 선출 권력에 도전까지 했다. 그렇게 들어선 '검찰총장의 정부'는 노골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

치하고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을 힘으로 뒤엎고 뭉개는 중이다.

이 책은 검찰권 견제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최강욱 의원이 주도하고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성운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탄희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나서 과거와 현재의 검찰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 과제를 논한 기록이다.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검찰이 어떻게 폐쇄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이해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이른바 '검찰 패밀리'가 공유하고 있는 강고한 이해관계와 집단논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고발되며 이제는 행정부 전체를 장악해 견제받지 않게 된 검찰 권력의 폐해가 낱알이 밝혀진다.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취지와 과정, 뒷이야기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당시 권력기관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 왜 검찰만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내고 시대를 역행할 수 있었는지를 증언한다. 여소야대 제22대 국회가 출현한 가운데 '검찰정권 심판' 이슈가 뜨거운 요즘, 검찰개혁의 주역들과 함께 더이상 실패해선 안 되는 개혁의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다. 뉴스시스

혁신당이 득표율 24.25%를 기록하면서 국회의원으로 첫 입지를 다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개혁 과정에 참여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참여정부 이래 제기되어온 검찰 개혁에 형사법 전공 교수로서 다양한 경로로 참여해왔고, 특히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촛불혁명 이후 국민의 열망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한 과정을 설명한다. 당시 정부 개혁의 기조는 당사자 기관 구성원들이 스스로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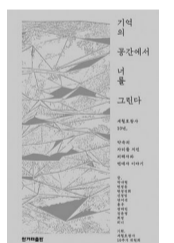
의하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있었음을 말하며 전 정부 개혁의 의미와 나아가야 할 점, 아쉬움을 이야기 한다. 법무부장관 지명 전후로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대상이 되고 언론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된 이른바 '조국사태' 당시의 심정과 연결해 검찰개혁에 대한 진심을 털어놓는다. 조 장관과 함께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실무 조율을

담당한 이광철 전 비서관 역시 문재인정부 개혁 방향의 타당성과 그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검찰정권의 탄생으로 귀결된 역사의 아이러니를 말한다. 이어서 검찰 안팎을 경험하며 그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연주 변호사와 조성식 기자가 검사, 검찰 수사, 검언(檢言) 관계를 두루 비판한다. 검사로 재직할 경험을 시민들에게 공유해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는 이연주 변호사는 권력 지향적이고 내부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한 검사 집단의 사고방식과 그 폐해를 말한다. 그의 증언은 아주 생생하다. 사건으로 '거래'하는 간부 검사들 이야기부터 스폰서, 전관예우, 사건청탁, 인사청탁, 특수부 '사단' 등 외부인은 알기 힘든 검찰 내부의 속사정 등 검찰개혁 최전선에서 싸운 8인의 절박한 증언이 이어진다.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이자 범죄를 단죄하는 칼날로서 시민을 지키고 있다고 자처하지만 그런 수사조차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임이 지금의 검찰 정권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보다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그 탐색의 최전선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세월호 참사 10주년 약속 지킨 피해자와 연대자 이야기

기억의 공간에서 너를 그린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 | 한겨레출판 | 2만2000원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참담한 소식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 함께 외쳤다. 그 연대의 힘으로 특별법을 제정했고 선체를 인양했으며 무책임한 정부를 탄핵했다. '한국 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처럼, 세월호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기억을 약속했던 공간들은 하나둘 사라져 갔다.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완, 책임자들은 속속 무죄를 판결받았다. 2024년 또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의 소식을 듣는다. 빠른 세월이 놀라기도 잠시, 많은 이들이 잊거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약속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는 사실에 놀란다. '기억의 공간에서 너를 그린다'는 세월호참사 10년의 시간을 통과해 온 기억공

간들을 중심으로 세월호 생존자, 유가족, 활동가들을 인터뷰 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다음 걸음을 고민하는 책이다. 세월호 참사를 증언하는 여러 기록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연대자들의 광장이자 집이자 쉼터였던 '세월호 기억공간'을 재조명하고 그 필요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태원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우리 사회에 끔찍한 참사는 반복되어 왔다. 변한 게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나, 기억공간의 문을 열고 흔적을 좇는 글을 읽다 보면 세월호가 그려온 선명한 변화의 궤적을 발견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이 주축이 돼 발족한 '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의 기획으로 송경동 시인이 직접 각 분야에서 10인의 작가를 모았다. 10년 전 약속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10년을 그리겠다는 다짐을 응원하기 위해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가 서문을, 김훈 소설가가 추천의 글을 보냈다. 작가, 생존자, 유가족, 활동가들이 모인 10년의 사진 또한 선별해 실었는데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곳곳에서 커져버린 기억의 공백을 생동감 있게 메우려는 시도다. **도선인 기자**

## 세월호 참사, 애도는 상실을 대면하는 '용기 냐'

2014년생  
송김경화 | 아를 | 1만5000원



극작가 겸 연출가 송김경화의 희곡 '2014년생'은 2014년 '생' 시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 언니들(김도연·김주희)과의 만남을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알아가고, 끊이지 않는 사회적 재난의 원인에 다가가려 노력하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2014년생' 원작 희곡의 연극 제작을 함께한 세월호 참사 생존자 김도연, 김주희의 에세이, 인권운동가 미류의 해설이 수록돼 있다.

이 작품은 뛰어난 구성과 유쾌한 대사들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장소들은 물론 장애인 지하철 시위 현장,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어린이보호구역, 기후위기로 폭발 직전에 있는 미래의 지구 등 공

금해하지 않으면, 상상하지 않으면 알지 못할 장소들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럼으로써 2014년에 태어난 한 존재를 통해 다음 세대, 또 그다음 세대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게 세월호 참사는 '옛날이야기'가 아닌 지금 여기의 이야기로서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된다.

'2014년생'은 2022년에 초연된 후 '아동 청소년의 관점에서 세월호를 다시 바라보고 애도와 무기력을 반복하는 어른들에게 질문을 재구성하는 법을 알려줬다'는 평가를 받으며 2023년 제1회 이영만 연극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영만 연극상'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이영만(당시 단원고 2학년)의 어머니이자 연극배우인 이미경 씨 주도로 만들어진 상이다.

인권운동가 미류는 작품 해설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애도는 슬퍼함이 아니다. 상실을 대면하는 '용기 냐'이다. 부재의 자리에 무엇이 존재했는지 함께 알아갈 수

록 슬퍼할 용기가 난다." 이 작품은 2014년생인 시원이 '생존자' 언니들을 알게 되고, 언니들과 '세월호 참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궁금증을 갖게 되면서 한 편의 연극으로 발전해 나갔다.

시원은 다른 사람이 겪은 아픔과 상실을 애도할 수 있게 된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으로서 마주와 있는 일에 대해서도 더 궁금해하기로 한다.

세월호 기억공간 지키기 1인 시위를 하고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가고 쿨��레이드에 참여하고 스포츠용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책을 읽고 공부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사회적 재난들, 피해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의 구조적 원인에 다가가려는 어린이 나름의 노력이다.

시원은 동물학자 제인 구달의 말을 관객에게 전해준다. "알아야 사랑한다. 사랑해야 돕는다. 도와야 구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소녀들에게는 사생활이 필요해  
김여진 글·이로우 그림 | 사계절 | 1만3000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10대 소녀들을 위한 자기 계발 실용서. 초등학교고학년으로 올라가며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 여자아이들. 저학년 때와 비교해 관심사와 고민거리가 다양해지고, 부모님·친구·선생님과 관계에 예민해진다. 신체적인 변화도 겪는다. 이 시기 소녀들은 부모님에게서 벗어나 조금씩 자기만의 세계, '사생활'을 만들어나간다. 알파세대의 '요즘 소녀들'의 관심사와 고민거리 35가지를 엄선해 다루며 소녀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거미 엄마  
안수민 글·홍그림 그림 | 보랏빛소어린이 | 1만4000원

아들의 소풍 도시락을 싸기 위해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던 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하운이 엄마. 그런데 눈을 떠 보니 털이 부송부송한 여덟 개의 다리, 도르르 굴러가는 여덟 개의 눈, 실뿔에서 뿜히는 거미줄까지... 벌레라 하면 질색하던 엄마가 완벽한 거미가 되어 있었다. 엄마는 왜 거미가 된 것일까? 거미가 된 엄마는 과연 사랑하는 아들 하운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엄마가 떠난 빈자리를 감당하며 살아야 했던 하운이와 하운이 아빠에게, 거미 엄마는 거미줄처럼 끈끈한 사랑을 담아 가족을 하나로 꿰뚫어 준다.



궁 1~15권(개정판)  
박소희 | 재담미디어 | 권당 6500원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 부분 선정, 국내 누적 판매 160만부 이상, 일본 누적 판매 200만부 돌파, MBC 동명 드라마 방영 중 최고 시청률 28.3% 기록. 이 화려한 수식어의 주인공인 '궁' 개정판이 전자책에 이어 종이책으로도 출간됐다. '궁'은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여고생이었던 주인공 채경이가 TV로만 접했던 황태자 신이와 정략결혼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날 때부터 왕세자인 신이와 뻗속까지 소시민인 채경이가 사사건건 부딪치지만, 그 속에서 사랑을 싹틔워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